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3.(수) 12:00
(지면) 2026. 6. 4.(목) 조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1만 3,924명, 여성공무원 비율 52.0%

- 2025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발표
- 5급이상 여성공무원 첫1만명 돌파, 정년도래 인원 증가, 육아휴직증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25.12.31.기준)’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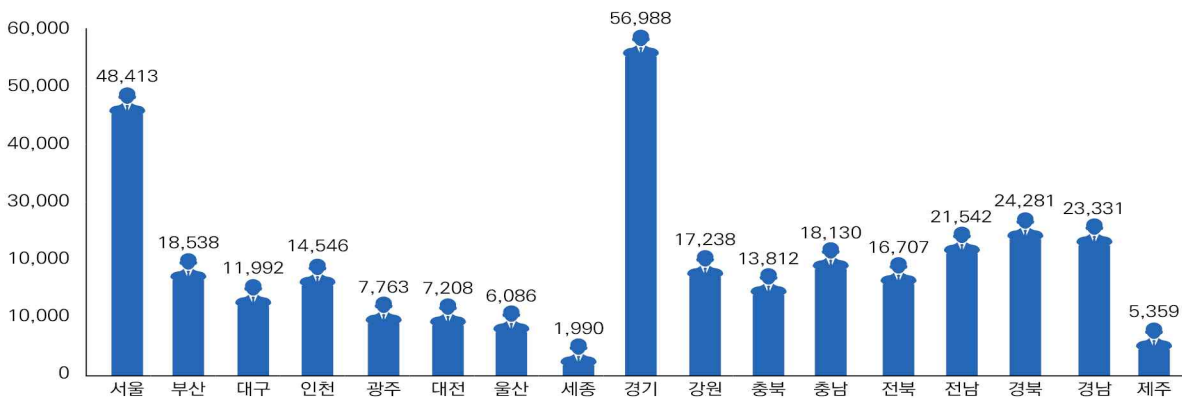
>> 지방공무원 현원 31만 3,924명, 여성 공무원 비중 꾸준히 증가

2025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은 2024년(31만 5,205명) 대비 1,281명(0.4%)이 감소한 31만 3,92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최근 육아휴직 등 휴직 인원이 2,818명 증가하면서 실제 근무 중인 현원이 소폭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 ('23년) 313,296명 → ('24년) 315,205명 → ('25년) 313,924명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만 6,9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4만 8,413명, 경상북도가 2만 4,281명으로 뒤를 이었다.

《 시도별 공무원 현원(2025년 말 기준, 단위 : 명) 》



시·군·구 중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4,07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수원시 3,802명, 경기도 고양시 3,456명, 경기도 용인시 3,409명, 충청북도 청주시 3,3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31만 2,057명, 특정직 929명, 별정직 660명, 정무직 278명 순으로, 일반직이 전체의 99.4%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으며, 일반직 내 직렬별로는 행정직렬이 42.8%로 가장 많고, 시설직렬 12.8%, 사회복지직렬 10.0%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6급 비율이 30.2%(9만 1,571명)로 가장 높았으며, 5급 사무관 이상 비율은 8.3%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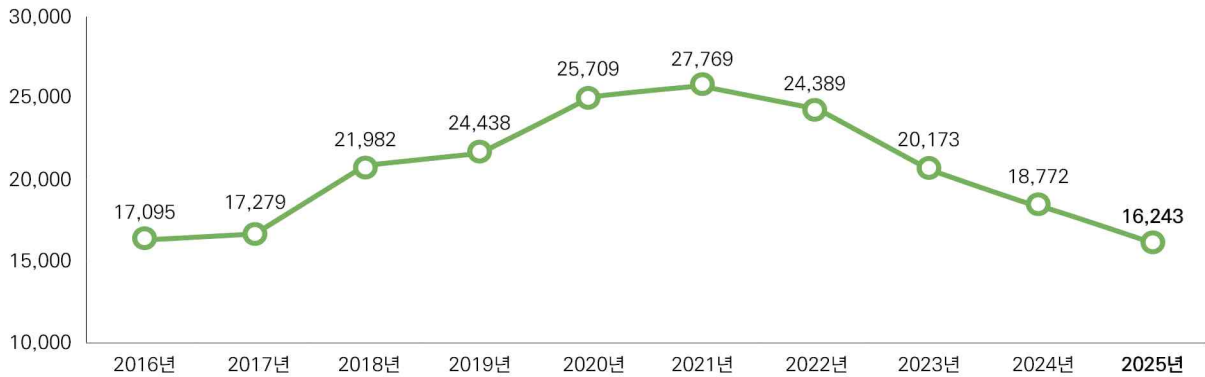
특히, 여성 공무원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은 2024년 대비 1,618명 증가한 16만 3,3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0%를 기록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 7,139명 중 여성은 10,518명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으며, 비율 또한 2024년(34.73%) 대비 크게 상승한 38.75%를 기록하며 공직 내 여성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휴직 인원 9.1% 증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영향

인사 운영 현황에서는 휴직 인원의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띈다. 휴직 인원은 3만 3,948명으로 2024년 대비 2,818명(9.1%) 증가했다.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이 2만 4,266명(71.5%)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휴직 7,140명(21.0%), 가족돌봄휴직 1,659명(4.9%) 순이었다. 이는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 등 정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적 문화가 안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5년 신규임용 인원은 1만 6,243명으로 2024년 대비 2,529명(13.5%) 감소하며, 2021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 연도별 신규임용 인원(2016~2025년) 》



하지만 향후 3년간 정년퇴직 예정 인원이 2026년 4,550명, 2027년 7,837명, 2028년 9,27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맞춘 신규임용 규모도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참고로 2025년 퇴직 사유로는 정년퇴직이 5,994명(39.0%)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면직 5,244명(34.1%), 명예퇴직 2,801명(18.2%)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는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및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매년 5월 30일 공표하고 있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데이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가 단순한 인력 관리를 넘어, 지속가능한 인사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며, “미래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지방인사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5-3341)
		담당자	사무관	최윤주 (044-205-3361)



연도별 지방공무원 현원*

(2025.12.31. 기준, 단위 : 명,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방직 국가직전환)
현원	303,401	310,654	322,862	337,084	292,182
증가인원 및 증가율	+ 7,128 (+ 2.4%)	+ 7,253 (+ 2.4%)	+ 12,208 (+ 3.9%)	+ 14,222 (+ 4.4%)	-44,902 (-13.3%)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현원	301,930	308,879	313,296	315,205	313,924
증가인원 및 증가율	+ 9,748 (+ 3.3%)	+ 6,949 (+ 2.3%)	+ 4,417 (+ 1.4%)	+ 1,909 (+ 0.6%)	-1,281 (-0.4%)

* 현원은 교육청 제외, 휴직, 교육파견 등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 20년부터는 소방직 제외

시도별 지방공무원 현원

(2025.12.31. 기준, 단위 : 명)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313,924	48,413	18,538	11,992	14,546	7,763	7,208	6,086	1,99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6,988	17,238	13,812	18,130	16,707	21,542	24,281	23,331	5,359

※ 광역별 기초 시·군·구 모두 포함

계급별 비율(1급~9급)

(2025.12.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일반직 전체	고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원	303,209	36	7	92	550	3,451	21,633	91,571	86,063	64,229	35,577
비율	100%	-	-	-	0.2%	1.1%	7.1%	30.2%	28.4%	21.2%	11.7%

*연구관·지도관은 5급에, 연구사·지도사는 6급에 포함

연도별 신규임용, 퇴직, 휴직인원

(매년 1.1.~12.31. 기준,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규임용	17,095	17,279	21,982	24,438	25,709	27,769	24,389	20,173	18,772	16,243
퇴직	10,790	11,903	13,112	14,445	14,923	15,822	15,937	15,588	15,913	15,382
휴직	15,381	15,904	18,058	19,488	23,814	28,034	31,300	29,877	31,130	33,948